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부초등학교 교장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데 올해는 지난 겨울방학 이후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학교 교육이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offline)을 할 수 없어 비대면의 온라인(online) 원격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도 부담이 늘어났다.

교육은 교육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활동인데 교육 환경의 물적 환경은 교육 기자재와 자료며 인적 환경은 교사와 부모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을 잘하려면 물적 환경인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 기기와 인적 환경인 부모의 역할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방법을 지도하고 스스로 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지도자인 부모가 교육 방법을 먼저 알고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가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정미소에서 버가 떨어져 쌀로 되는 과정을 보면 방아 고에 직접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버가리 부딪쳐 떨어지는

것이 더 많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식 정보 기능을 받아들여 발전해가는 교육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도 많지만, 가르침이 없거나 혼자 습득해 깨운 것이 많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지식 정보 기능을 가르침을 받아 익히는 것도 많지만, 스스로 익혀 깨운 것이 많다.

문자를 보고 읽지 못하는 것을 문맹이라 하는데 국제화 시대에 각국에는 문자가 있지만, 영문자와 한글문자 우리의 한글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한자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한글문자를 읽지 못하는 한자 문맹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가운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이란 항목에서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의교육, 한자 교육 등(전체 38개)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교장 재량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나 혼자 하는 한자 교육의 방법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외면하고 있으나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 방법으로 한자를 익혀 활용하고 있다.

시중에는 초등학교수준에 알맞은 한자 교육 자습교재가 출판되어 한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교나 학부모가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의 준비물로서 한자 책 학습장 연필 붓 펜 신문지 모노 판을 제공하고 먼저 할 일 단계는 한자 교재의 글자를 읽기와 뜻 알기인데 이것은 한자 책의 한자 밑에 한글로 새김(흔)과 음이 쓰여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한글을 알면 한자를 읽으며 책의 그림을 보고 뜻을 알아본다.

한자 읽기는 학년 단계에 맞게 50자 100자 150자로 편집된 6단계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다음은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기인데 한자 획수에 따른 필순이 한자책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순에

따라 한자 책에 쓰면 된다. 필순을 익힌 다음은 한자 학습장에 쓰기를 하여 익히고 마지막으로 붓 펜으로 신문지 위에 모노 판을 올려놓고 필력을 살려 정성껏 쓰면서 한자를 익히게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하는 학습 분량을 2~4자를 기준으로 하여 붓 펜으로 쓰기 단계에서 한자 공부의 정착을 하게 하는 단계인데 쓰기의 바른 자세와 집필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에서 발행한 한자 교육 교재에는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 방법의 안내 CD가 들어 있어 컴퓨터에 삽입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 과정의 방법지도서를 하여 혼자 하는 한자 공부를 매일 하게하고 학생이 여가를 선용해 혼자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방법지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은 경험의 총체인 교육 과정을 공부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 학교장 재량 시간 활용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 활용 방법 지도를 하여 '나 혼자 할 수 있는 한자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소외되었던 한자 교육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하게 하는 교육으로 여가를 선용해 '나 혼자 하는 한자 공부'를 하게 하자.

社 設

마스크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달 31일 0시 기준 2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238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1만 9947명이다. 광주·전남에서도 각각 9명,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환자는 광주 374명, 전남 144명으로 늘었다.

이들 연속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감염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제 코로나19 안전지대와 요행은 없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3단계 격상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그동안 방역 당국의 노력과 수고를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같은 2차 대유행은 8.15광화문집회와 특정 종교집단의 단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채 확보보다 양성관정을 받은 사례가 광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하순 거주 70대 여성에 의한 광주 성립침례교회 수십명 확진자 발생에 이어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숨어 있던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을 밝혀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구의 병상 부족 사태가 재연되는 조짐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가 다시 비대면 교육에 들어갔다.

경제 충격과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깜깜이' 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언제 어디서 대유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신천지 사태 때에 비해 배 이상 높다고 한다.

중증 고령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 병상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경증·중증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해 의료 시스템의 부하를 낮추고 경증 환자용 생활치료센터도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과 장비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특히 의사 파업까지 겹치면서 인력 확보는 가장 큰 문제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역과 대응 조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채 다니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마스크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마스크 착용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 지킴이는 개인이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령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온 국민이 동참해야

금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전국도가 온통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손실까지 입었다. 폭우가 지나간 도로는 곳곳이 끊기고 파여 통행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서둘러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도로 파임현상

인 포트홀은 도로 위의 흉기로 둔갑한다. 도로 관리 당국과 지자체에서 보수를 했다지만 여전히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 전방 주시기가 제대로 안 돼 교통사고 위험도는 더욱 높다.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 또한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 위험에 놓인 곳도 많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 찾아가진

단,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발견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수해 복구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도 장마 기간 가동했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복구지원본부'로 전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난 폭우로 수해를 당하지 않은 이웃이 없을 정도

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우리는 예로부터 수재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도와 왔다.

회회를 뒤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할 때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